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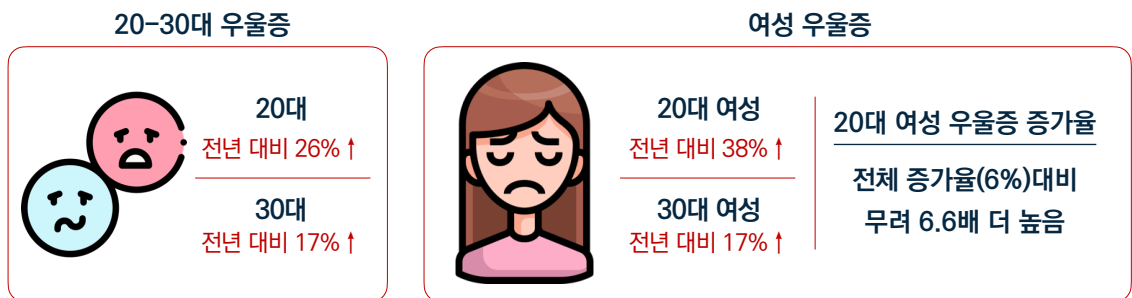
1



코로나19 우울증 진단, 20대 여성이 전년 대비 38% 증가하여, 타연령층보다 압도적으로 높아!

- 코로나19에 따른 우울증 진단 현황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(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)에 의하면, 올 상반기(1-6월) 우울증 진단 환자는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6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, 특히 '20대'는 26%, '30대'는 17%로 전체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여 코로나19가 20~30대 젊은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
- 주목할 점은 20대 여성의 우울증 증가율이 38%(남성 증가율 10%)로 나타나, 상대적으로 20대 여성이 타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블루 현상을 더 크게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

[그림] 2020 상반기 우울증 진단 인원 증가율(2019년 상반기 대비)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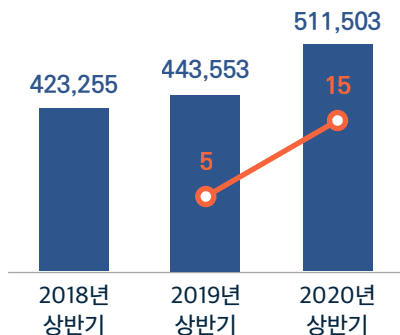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박정 의원 국정감사(국민건강보험공단) 자료, '코로나 확진자 급증한 2월과 6월 우울증 환자도 급증', 2020.10.07

● 2020년 상반기, '정신건강 관련 정보 문의 및 심리 상담' 15% 증가

- 2020년 상반기(1-6월) 정신건강 관련 문의 및 심리 상담 건수는 511,503건으로 2019년 상반기 443,553에 비해 15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[그림] 연도별 정신건강 관련 정보 문의 및 심리 상담 현황 (%)



*자료 출처 : 박정 의원 국정감사(국민건강보험공단) 자료, '코로나 확진자 급증한 2월과 6월 우울증 환자도 급증', 2020.10.07